ISSN 2714 - 1152
(구 음악과 예술)

음악예술연구
Journal of Musical Arts

제12권 2호 2022
Volume 12 Number 2 September 2022

채 수 아

아믈랭의 피아노 독주곡집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연구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회
The Musical Arts Association

ISSN 2714-1152
(구 음악과 예술)

음악예술연구

Journal of Musical Arts

· 제12권 2호 · 2022
Volume 12 Number 2 September 2022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회
The Musical Arts Association

음악예술연구

제12권 2호

논 문

채 수 아

아믈랭의 피아노 독주곡집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연구 1

Journal of Musical Arts

Vol. 12 No. 2

Articles

Sooah Chae

A Study on *12 Études in All the Minor Keys* by Hamelin 1

음악예술연구
Journal of Musical Arts
September 2022 Vol. 12, No. 2, pp. 1-33

아믈랭의 피아노 독주곡집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연구

채 수 아*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대 피아노 기교의 발전과 다양한 레퍼토리의 확장에 기여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아믈랭의 피아노 독주곡집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연주와 작곡을 병행하는 골든 에이지 피아니스트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아믈랭의 대표작을 연구함으로써 옛 세대와 현재를 잇는 방식을 고찰하고 새로운 현대 레퍼토리를 소개하여 연주자들의 식견과 선택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해당 작품의 악보, 관련 문헌,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작곡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부적인 작품 분석을 시도하였다.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의 연구를 통하여 21세기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의 명맥을 잇는 아믈랭의 확고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옛 전통과 새로운 기교 및 음향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치 있는 연주회용 연습곡 레퍼토리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

*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예술교육학과 강사, chae1990@gmail.com

목차

Ⅰ. 머리말
Ⅱ.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아믈랭
Ⅲ. 아믈랭의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연구
Ⅳ. 맺음말
참고문헌

Ⅰ. 머리말

이 시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인 아믈랭(Marc-André Hamelin, 1961-)은 광범위한 레퍼토리와 비르투오소적 연주로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그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진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의 계보를 연결하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논문에서는 아믈랭의 주요 피아노 독주 작품인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12 Études in All the Minor Keys)>(1986-2009)의 분석을 통하여 전통적인 피아노 작품들에 나타나는 음악 어법의 영향과 현대 피아노 작법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고찰한다.

아믈랭은 전통적인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광범위하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이다. 그는 자신이 자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의 영향을 받아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을 작곡하였다. 특히 알캉(Charles-Valentin Alkan, 1813-1888)과 고도프스키(Leopold Godowsky, 1870-1938)에게서 큰 영감을 얻었는데, 아믈랭은 이들의 연주로 명성이 높다. 이 작품의 초기 제목은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알캉과 고도프스키에 바치는 오마주->였으나 이후 현재의 제목으로 변경되었다(채수아, 2021). 그는 알캉, 고도프스키 외에도 소랍지(Kaikhosru Shapurji Sorabji, 1892-1988)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파가니니(Niccolò Paganini, 1782-1840), 차이코프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스카를라티(Domenico Scarlatti, 1685-1757), 쇼팽(Frederic Chopin, 1810-1849) 등의

작곡가에게 영감을 얻어서 이 작품을 완성하였다(Classical Music Sentinel, 2010).

이 논문은 골든 에이지 시대의 전통을 잇는 현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서의 아믈랭의 위치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을 고찰한다. 아울러 옛 전통과 현재를 관통하는 피아니즘이 투영된 작곡 기법 및 현대 피아노 기교의 진화된 모습과 연주에 있어 고려할 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대의 피아니스트들에게 현존하는 작곡가의 현대 레퍼토리에 관한 문헌적 정보를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아믈랭

1. 피아니스트 아믈랭

아믈랭은 캐나다 태생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 현 시대를 대표하는 비르투오소 연주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는 뉴욕타임즈의 수석 평론가였던 숀버그(H. Schonberg)에 의하여 '슈퍼 비르투오소'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높은 수준의 기교를 가진 연주자이다(채수아, 2021). 아믈랭은 이 거장적 기교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음악적 개념을 실현하며 기존의 레퍼토리 외의 덜 알려진 작품을 연주하여 피아노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하이페리온(Hyperion) 사와의 계약으로 70여 장의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11번의 그래미 상 후보 지명과 더불어 클래식 음악계의 최고 권위인 그라모폰 상, 디아파종 상 등을 수상하였고, 음악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국 캐나다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Hamelin, 2018).

아믈랭의 초기 음악 수업에 영향을 끼친 그의 부친은 뛰어난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인 동시에 골든 에이지[1] 피아니즘을 선호하여

1) 골든 에이지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서 피아노 작품과 연주의 비약적인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음악을 망라한 광범위한 종류의 피아노 악보를 수집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다양한 피아노 레퍼토리에 눈을 뜬 아믈랭은 10대 시절에 몬트리올의 뱅상 댕디 음악원(École Vincent-d'Indy)에서 코르토(A. Cortot)의 제자였던 위페르(Y. Hubert)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이후 위딘(H. Wedeen)과 셔만(R. Sherman)을 사사했다(Duchen, 2004). 그는 24세였던 1985년에 카네기홀 국제 콩쿠르(Carnegie Hall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우승하며 전 세계에서 연주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과 북미, 유럽, 아시아의 주요 콘서트홀에서 연주해왔다(Eatock, 2013).

그는 1994년, 영국의 위그모어 홀에서 열린 '로맨틱 비르투오소 시리즈(The Romantic virtuoso series)'로 성공을 거두며 본격적으로 하이페리온(Hyperion) 사와 다양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채수아, 2021). 그 후 지금까지 70여 장의 음반을 출시하며 광범위한 음반 작업에 참여한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Hyperion, 1994). 아믈랭은 대단한 기교의 소유자이지만 단지 기교를 위한 연주를 지양한다. 그에게 기교는 지적인 활동이며 음악적 표현의 수단이다(Jordan, 2009). 그는 방대한 규모와 최고의 난이도를 지닌 작품을 연주할 때도 깊고 사려 깊은 표현력으로 호평받고 있다. 떠한 덜 알려진 작곡가들의 놀라운 창작물을 청중에게 소개하여 자칫 놓칠 뻔한 음악적 기회와 도전을 선사하는 의미로 선곡 및 연주에 임한다. 그는 현재 가장 도전적인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로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거나 난곡으로 꼽히는 다양한 작품을 연주하며 타 연주자들과의 차별화를 꾀하였다(Eatock, 2013). 그는 알캉(C. Alkan), 부조니(F. Busoni), 고도프스키(L. Godowsky), 메트너(N. Medtner), 카투아르(G. Catoire), 파인베르그(S. Feinberg), 소랍지(K. Sorabji)[2] 등의 작품을 망라한 다양한 음반

발전을 이룬 시기를 의미한다.

2) 소랍지(Kaikhosru Shapurji Sorabji, 1892-1988)는 영국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며 평론가이다. 그는 비르투오소적인 피아노 작법과 복합적인 구조로 이

을 출시하였다. 더불어 전통 레퍼토리인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쇼팽, 슈만, 브람스, 리스트, 드뷔시 등의 작품들도 녹음하였다.

2. 작곡가 아믈랭

아믈랭은 십 대부터 습작 시절을 거치며 꾸준히 자신의 작품을 발표해 왔다(Hamelin, 2018). 주요 작품은 모두 피아노 독주곡으로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1986-2009), <콘 인티씨모 센티멘토: 7개의 소곡(Con intissimo sentimento: a collection of 7 pieces for solo piano)>(1986-2000), <주제와 변주곡(Theme and variations(Cathy's variations))>(2007),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Variations on a theme of Paganini)>(2011), 2017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의 지정곡으로 위촉된 <"무장한 남자" 토카타(Toccata "L'homme armé")>(2017), <"옛 양식의 모음곡"(Suite in the old style)>(2020)이 있다. 그 밖에도 유명한 라틴 음악인 아브루의 "티코-티코"를 편곡한 <티코-티코(Tico-tico, no Fubá)>와 세 곡의 플레이어 피아노를 위한 작품 및 몇몇 소곡들이 있다(Hamelin, 2021).

그는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보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알려지기를 바란다(Eatock, 2013, p. 299). 자신을 경이로운 피아노 기교의 대가로 한정하는 대신 작곡가과 편곡자, 그리고 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18세기의 모차르트와 베토벤, 19세기의 쇼팽과 리스트 및 다수의 음악가, 20세기의 프로코피에프, 라흐마니노프 등의 명단에서 알 수 있듯이 피아니스트의 작곡 능력이 당연했던 시대가 있었다. 대략 19세기 리스트로부터 비롯되는 골든 에이지 피아니스트들의 작곡 겸업에 관하여 평론가 림(R. Rimm)은 여덟 명의 주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즉 알

루어진 난해한 작품들을 출간하였다.

캉, 부조니, 고도프스키, 스크리아빈, 라흐마니노프, 메트너, 파인베르그, 그리고 소랍지를 거론했다(Debenham, 2013, p. 186). 림은 2002년에 출시된 DVD 다큐멘터리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아믈랭과 8인(The composer-pianists: Hamelin and the eight)>에서 외면되어 온 골든 에이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들을 기억할 것을 제안하며, 아믈랭이 이 명맥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Corlenios, 2007, p. 31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로 연주자와 작곡가의 역할이 분리되면서 이 전통은 현재 활약 중인 아믈랭과 플레트네프(M. Pletnev, 1957-), 허프(S. Hough, 1961-), 세이(F. Say, 1970-), 그랴즈노프(V. Gryaznov, 1982-) 등 몇몇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들이 이어가고 있다.

아믈랭은 현대 작곡가들이 표방한 포스트모더니즘보다 골든 에이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들의 전통에 더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를 나타내는 그의 작품은 반음계주의가 첨가된 전통적인 조성 체계를 바탕으로 작곡되었다(Benser, 2012). 또한 편곡에 능했던 그 시대의 전통에서 영향 받아 이미 작곡된 작품에 바탕을 둔 편곡과 창작곡이 비슷한 비중을 이룬다(Eatock, 2013). 그의 작품들은 고도의 기교를 요구하는 동시에 아믈랭 특유의 재치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로 이루어져 있다(Burwasser, 2011). 그는 자신이 자주 연주하는 작품들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하는 경향이 있는데, 알캉의 현란한 기교와 독특한 유머, 고도프스키의 복잡한 짜임새, 부조니의 코스모폴리탄 정신, 소랍지의 기괴함 등이 있다. 이렇듯 아믈랭은 다면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작곡하며 단순한 기교 자체에 한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작곡가이다(Corleonis, 2007).

III. 아믈랭의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연구

1. 작곡 및 녹음

아믈랭은 1986년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의 작곡에 착수하여 2009년에 완성하였다. 2010년에 페터스 출판사(C. F. Peters pub.)가 전곡 악보를 출간하였고 이듬해인 2010년에 하이페리온사에서 작곡가의 연주로 전곡 음반이 출시되었다. 그는 뉴욕에서 이 작품 및 음반을 홍보하기 위하여 연주회를 열었는데, 음반보다 악보가 더 일찍 매진되는 드문 상황이 연출되었다(Eatock, 2013, p. 200). 이는 새로운 음악을 향한 현 시대 피아니스트들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녹음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첫 녹음은 1998년 하이페리온에서 출시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The composer-pianists)> 음반이며, 립이 선별한 여덟 명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그리고 아믈랭의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이 음반에서 그는 자신의 연습곡 제9, 10, 12번을 수록하였고, 2000년에 출시된 음반인 <만화경(Kaleidoscope)>에 제3, 6번을 녹음하였다. 이후 2007년 출시된 DVD <마르크-앙드레 아믈랭 - 한계가 없는(Marc-André Hamelin - No limits)>에서 제7번을 실황 녹음하였고, 2010년에 전곡 음반을 하이페리온에서 출시하였다(Hamelin, 2018).

음반과 악보 출시 당시 평론가들은 이 작품의 비르투오소 레퍼토리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현 시대의 피아니스트들이 도전하고자 하는 기교의 요소들을 모두 갖추었으며, 과거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들도 인정할 법한 음악적인 성취를 거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Harrington, 2011, p. 135).

2.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에 관하여

이 연습곡집은 쇼팽, 리스트, 드뷔시, 스크리아빈, 라흐마니노프 등의 연주회용 연습곡의 계보를 잇는 작품이며, 이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를 향한 경의의 표현이다(Burwasser, 2011). 아믈랭은 리스트를 위시한 여러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의 전통에 합류해 왔다. 그리하여 현대 작곡가들의 형식적 모더니즘과 무조성의 음악 대신 전통적 조성을 바탕으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형식인 성격 소곡으로 이 연습곡집을 작곡하였다(Burwasser, 2011). 아믈랭은 이 작품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기교적 도전일 수 있지만 각 곡의 감성적인 특징을 무시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음반에서 각 작품마다 성격 소곡에 적합한 표현 방식으로 연주하여 독특한 음향과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 곡집은 작곡가로서의 기법적 연습곡이기 때문에 화성과 구성, 대위법적 세심함 등을 고려하여 연주하도록 제언하였다(Hamelin, 2010).

아믈랭은 이 작품을 자신이 자주 연주하는 작곡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하였고, 알캉의 <12개의 단조 연습곡, Op. 39>(1857)에서 그 제목을 가져왔다. 그는 둘루(B. Dulu)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원래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알캉과 고도프스키에 바치는 오마주->로 명명하였으나 후에 현재의 제목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Dulu, 2015).

이 작품은 리스트와 알캉의 연습곡처럼 표제 또는 부제를 가지며 특정 작곡가의 선율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편곡 기법을 보여준다. 연주자는 이 표제를 통하여 작곡가가 영감을 얻은 배경을 깨달을 수 있다. 아믈랭은 이 작품 전체에 걸쳐서 알캉과 고도프스키 이외에도 파가니니-리스트, 스카를라티, 차이코프스키, 쇼팽 등 자신이 도전과 영향을 받은 작곡가를 표기하여 과거의 전통에 오마주를 바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집은 편곡과 창작곡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이룬다(채수아, 2021)(표 1).

<표 1> 아믈랭의 <12개의 연습곡> 제목, 연도, 조성, 형식 (채수아, 2021, p. 161-162 재인용)

제목, 연주 시간 (아믈랭의 2010년 음반 연주 시간)	작곡 연도별 순서	조성 단조	형식
제1곡: 삼중 연습곡(Triple étude(after Chopin)) 2'15	1992 (5)	A	편곡
제2곡: 머리털자리(Coma Berenices) 2'51	2008 (11)	E	창작곡
제3곡: 파가니니-리스트 연습곡 (After Paganini-Liszt) 4'59	1993 (6)	B	편곡
제4곡: 무궁동(無窮動) 풍의 연습곡(Étude à movement perpétuellement semblable(d'après Alkan)) 3'59	2005 (7)	C	편곡
제5곡: 그로테스크 토카타(Toccata grottesca) 4'38	2008 (10)	G	창작곡
제6곡: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에의 오마주(Esercizio per pianoforte(Omaggio a Domenico Scarlatti)) 3'31	1992 (4)	D	창작곡
제7곡: 왼손을 위한 연습곡(After Tchaikovsky(for the left hand alone)) 5'01	2006 (8)	E^{b}	편곡
제8곡: '마왕'('Erlkönig'(after Goethe)) 4'44	2007 (9)	B^{b}	창작곡
제9곡: 로시니 연습곡(After Rossini) 3'48	1987 (2)	F	편곡
제10곡: 쇼팽 연습곡(After Chopin) 2'01	1990 (3)	$F^{\#}$	편곡
제11곡: 미뉴에트(Minuetto) 6'27	2009 (12)	$C^{\#}$	창작곡
제12곡: 전주곡과 푸가(Prelude and fugue) 6'09	1986 (1)	A^{b}	창작곡

작곡 연도별 순서에서 보이듯 아믈랭은 첫 여섯 곡을 작곡하고 12년 동안의 휴지기를 가진 후 나머지 여섯 곡을 완성하였다. 그러

나 긴 휴지기 전과 후의 별다른 양식적인 변화는 없다(Dulu, 2015). 그는 전통적인 조성 체계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작곡하였다. 조성 진행 외에는 각 작품 사이의 특이한 연결성은 없으나 제11번과 12번은 *attaca*로 이어서 연주한다.

조성 진행은 다음과 같이 완전5도, 그리고 반음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제1곡은 A단조이며 제2곡은 그로부터 완전5도 위의 E단조, 제3곡은 다시 완전5도 위의 B단조이다. 제4곡은 제3곡의 조성으로부터 반음 위 조성인 C단조이며, 이후 세 곡씩 같은 패턴으로 진행한다.

A – E – B단조
C – G – D단조
E^{b} – B^{b} – F단조
$F^{\#}$ – $C^{\#}$ – A^{b} ($G^{\#}$)단조

이 조성 배열에 관하여 아믈랭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1986년에 제12번 '전주곡과 푸가 A^{b} 단조'를 작곡할 무렵 나는 이것을 독립적인 작품으로 간주하였다(이 곡은 나의 최초 주요 작품이다). 나중에 연습곡집을 완성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듬해 '왕벌의 비행'을 작곡했는데 이 작품은 A단조였다(나중에 이 작품은 폐기하였다). 결국 12곡의 조성 순서에 관하여 고민하기 시작했고, A 단조를 첫 조성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전체 12곡을 반음계적인 진행과 달리 독창적인 순서로 나열하고자 현재의 배열을 착안했다(채수아, 2021).[3)]

3) What happened is that I first wrote No. 12 (my first really substantial piece) as a stand-alone work, and only later did I think of making it a part of a set of études. And since the very next one I wrote after that was in A minor (a version of 'Flight of the Bumblebee', since discarded), I started to think about having the 12 follow some kind of regular sequence, since I wanted that A minor one to be no.1. So, instead of having the 12 follow each other up the chromatic scale key-wise (i.e. A

아믈랭은 이 연습곡집의 연주에 있어서 정확한 템포와 리듬을 요구하며 각 작품에 메트로놈 빠르기를 표기하였다. 한 예로 제5번의 박자는 '♩=160, absolutely strict(절대적으로 엄격하게)'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연주자가 임의로 자유로운 아고긱을 구사하는 것을 지양하여 제2, 3, 4, 5, 9, 12번의 마지막 부분에서 'senza rit.(느려지지 말고)'를 표기하였다. 제3, 4, 5번에는 'senza rit.!' 표기로 강력한 연주 지시를 하고 있다.

위에 저자의 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연습곡집의 제1곡은 원래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의 편곡이었으나 이후에 작곡된 '삼중 연습곡'이 음악적으로 더 뛰어나며 이 작품집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변경되었다(Hamelin, 2010, p. iii).

(1) 제1곡 '삼중 연습곡'

아믈랭은 유년 시절부터 부친이 소장하고 있던 고도프스키의 <쇼팽 연습곡에 의한 연습곡집(Studies on Chopin's études)>에 매료되었다(AllegroModerato, 2006). 그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곡들을 연주하고 녹음하였으며 1999년에 하이페리온에서 고도프스키의 연습곡 전곡을 음반을 출시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Burwasser, 2011).

20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고도프스키는 1894년에서 1914년에 걸쳐서 <쇼팽 연습곡에 의한 연습곡집(Studies on Chopin's études)>을 작곡하였다. 그는 이 53곡의 편곡 작품에서 하나의 연습곡을 다른 연습곡과 결합하는 대위적 기법, 독창적인 피아노 기교, 그리고 다양한 음색을 활용하여 편곡의 정수를 보여준다(Schonberg, 1987). 고도프스키는 53곡 외에도 최소한 11곡을 더 작곡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한 곡은 쇼팽의 연습곡 중 세 곡의 A단조 작품을 한 곡에 결합하는 아이디어로 완성되었으며 '삼중 연습곡'으로 명명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분실된 것으로

---

minor, B flat minor, B minor and so on) I thought I'd be a little more inventive, and came up with the sequence as it now is(corresponded in June, 2021).

추정된다(Hamelin, 2010).

아믈랭은 고도프스키에게 영감을 얻어 쇼팽의 세 개의 A단조 연습곡인 Op. 10 No, 2, Op. 25 No. 4, 그리고 Op. 25 No. 11을 구조적으로 이용한 연습곡 제1번을 작곡하였다(채수아, 2021). 고도프스키의 연습곡과 같이 아믈랭은 성부끼리, 그리고 주제들이 얽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협화음을 마다하지 않는 까다로운 작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조성 외의 공통점이 없는 세 곡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 각 작품이 차례대로 일정한 부분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작곡하였다(Hamelin, 2010). 그리고 이 곡은 뛰어난 대위 기법의 좋은 예시로도 평가되었다(Debenham, 2013).

이 곡은 세 개의 연습곡의 독창적인 모티브와 주제 음형이 동시에 인용되기 때문에 연주자에게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엇갈리는 리듬을 정확하게 표현하며 시종일관 가볍게 연주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작품의 주제가 등장할 때마다 아티큘레이션의 명확성을 강조하여 차별화된 음색을 구사해야 한다(채수아, 2021).

<악보 1>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1번 '삼중 연습곡' 마디 1-2



이 곡의 도입부에서는 쇼팽 연습곡 세 곡이 동시에 등장한다. Op. 25 no. 11은 내성에 배치된다. 전체적으로 Op. 10 no. 2가 곡의 흐름을 주도하므로 가장 잘 들리도록 오른손에 배치하였고, Op. 25 no. 4는 반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악보 1). 이것은 19세기

리스트와 더불어 최고의 비르투오소였던 탈베르그 시대부터 골든 에이지를 관통하여 온 '세 손 효과'에서 영감을 얻은 기교이다 (Schonberg, 1987)(악보 1).

<악보 2>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1번 '삼중 연습곡' 마디 33-38, 마디 45-48



Op. 25 No. 11의 모티브가 마디 33에 등장하여 점차 확장되며 마디 37부터 주도권을 가진다. 그리고 잠시 자취를 감췄던 Op. 25 No. 4의 음형이 마디 45의 내성에 다시 등장한다. 이 작품은 다이내믹의 폭이 크지 않으면서 주선율과 대선율의 음색을 구별하는 연주에 목적을 둔 연습곡이다. 아울러 엇갈리는 4:6 리듬의 훈련에 집중하며 시종일관 가벼운 주법을 구사한다(악보 2).

(2) 제2곡 '머리털자리'

이 곡은 아믈랭이 그의 부인에게 헌정한 작품으로 고대 이집트의 베레니스 2세 여왕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별자리에서 그 제목을 가져왔다. 유려하고 고혹적인 뉘앙스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베레니스 2세의 아름다운 머릿결이 연상된다. 연주 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고요하며 침착한 뉘앙스를 구사해야 하는 작품이다.

<악보 3>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2번 '머리털자리' 마디 1-16



이 곡의 마디 1-14는 아믈랭의 십대 시절 습작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부분이다(Hamelin, 2010).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유려한 레가토와 페달로 긴 프레이징을 구사하는 훈련이 요구된다. 지속되는 겹음(double-notes) 음형은 기교적인 것을 넘어서 적절한 보이싱과 밸런스를 갖추며 자연스러운 뉘앙스를 구사하는 기술을 요구한다(악보 3).

<악보 4>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2번 '머리털자리' 마디 114-125



시종일관 유려한 선율이 계속되는 작품이나 마디 114에서 마디 125에 이르는 부분에서 잠시 뉘앙스의 변화가 나타난다. *Agitato*(격정적으로), *cresc(p~ff)*(점점 크게). *strepitoso*(강렬하고 거칠게) 등 구체적인 지시어로 급격한 전환을 구사하는 부분이다(악보 4).

(3) 제3곡 '파가니니-리스트 연습곡'

부조니가 파가니니-리스트의 <라 캄파넬라(La Campanella)>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편곡 작품을 작곡했듯이 아믈랭도 새로운 <라 캄파넬라>를 창조하였다. 그는 <라 캄파넬라>가 카논 풍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리스트보다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는 피아니즘을 시도하였고, 결과적으로 기발한 매력을 지닌 다성음악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Hamelin, 2010). 아믈랭은 이 곡을 2000년에 발매된 <만화경> 음반에 제6번과 더불어 녹음하였고, 그 후 일부가 개정되어 2010년 녹음에 반영되었다(채수아, 2021).

<악보 5>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3번 '파가니니-리스트 연습곡' 마디 1-15



이 작품의 도입부는 파가니니-리스트의 <라 캄파넬라>와 리듬

면에서 유사하지만 보다 넓은 음역에 걸쳐있다. 리스트가 종소리 음향의 재현에 집중하였다면 아믈랭의 작품은 종소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모티브를 보다 복합적으로 발전시키며 신선한 방향의 편곡에 중점을 둔다. 제9마디부터 본격적으로 주제가 등장하며 카논으로 진행된다(악보 5).

<악보 6>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3번 '파가니니-리스트 연습곡' 마디 130-135



아믈랭은 이 작품의 종결구에서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에 등장하는 두 가지 주요 음형을 양손에 등장시키는 다성적인 작곡 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 코다에는 등장하지 않는 주선율을 오른손이 연주하며 차별성을 시도한다(악보 6).

(4) 제4곡 '무궁동(無窮動) 풍의 연습곡'

아믈랭은 프랑스 출신의 낭만주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알캉의 작품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연주해왔으며 여러 음반을 출시하였다(채수아, 2021). 이 작품은 알캉의 <독주 피아노를 위한 교향곡(Symphonie for solo piano), Op. 39 No. 7>과 <무궁동 연습곡(Étude en mouvement semblable et perpétuel), Op. 76 No. 3>의 주제를 이용한 일종의 오마주이다.

아믈랭은 이 곡에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알캉의 작품을 인용하였으나 다소 익숙하지 않은 청자들도 무리 없이 즐기기를 바라며 흥미로운 작법을 사용하였다(Hamelin, 2010). 이 곡은 알캉의 두 작품의 경쾌한 혼합물로 제1번 '삼중 연습곡'처럼 세 곡의 아이디어가 뚜렷하게 들리며 원래 모습을 그대로 인용하는 대신 알캉의 두 작품의 형태가 남아 있는 작법을 택하였다. 그리고 기교의 한계를 실험했던 알캉의 작품처럼 고난이도의 기교를 요구한다. 이 곡은 <무궁동 연습곡>과 비슷한 분위기로 연주하며 충분한 긴장감을 유지하되 교향곡의 피날레만큼 극렬하게 연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곡 전체를 통하여 가벼운 레지에로(leggiero) 터치를 유지한다(Hamelin, 2010).

<악보 7>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4번 '무궁동 풍

의 연습곡' 마디 1-13



<악보 8> 알캉,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중 <독주 피아노를 위한 교향곡> 제4악장 Op. 39 no. 7, 마디 1-9



<악보 9> 알캉, 연습곡 Op. 76 no. 3 '무궁동 풍의 연습곡,' 마디 1-8



아믈랭의 '무궁동 풍의 연습곡'은 알캉의 Op. 39 No. 7의 도입부와(악보 8) Op. 76 No. 3의 도입부(악보 9)를 각각 오른손과 왼손에서 인용한다(악보 7). 이후에도 알캉의 다른 연습곡인 Op. 39 No. 12 '이솝의 향연'의 주제를 갑작스럽게 등장시키는 등 이 19세기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에게 경의를 표한다.

(5) 제5곡 '그로테스크 토카타'

아믈랭은 이 곡을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하였으나 그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Hamelin, 2010). 이 곡의 주된 초점은 지속적으로 몰아가는 리듬이다. 토카타에 걸맞는 주법으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리듬의 정확한 구사를 요구하는 연습곡이다. 아믈랭은 이 연습곡집 전체에 걸쳐서 템포 지시보다 빠른 연주를 지양하고 자신의 세밀한 지시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한다.

<악보 10>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5번 '그로테스크

토카타' 마디 1-16



리드믹한 도입부 이후 마디 9에서 주선율이 등장한다. 매우 빠르고 강한 주법이 강조되며 내성이 선율의 흐름을 담당한다. absolutely strict(매우 엄격하게)라는 지시어로 정확한 박자를 지시한다(악보 10).

(6) 제6곡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에의 오마주'

아믈랭은 스카를라티가 500여 곡의 소나타를 통하여 건반 음악에 기여한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 작품은 스카를라티의 작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관습적 어법을 부각하여 역설적으로 그에 대한 존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풍자적인 오마주이다. 아믈랭은 특유의 재치와 유머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 풍자의 정신이 곡해되지

않기를 원했다(Hamelin, 2010).

이 곡은 스카를라티의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손가락의 움직임을 요구한다. 넓은 음역대의 화려한 패시지와 빠른 도약, 그리고 곡예에 가까운 양손 엇갈림 기술(crossing hands) 등 스카를라티 특유의 도전적인 기교를 사용하였다(악보 11). 기교적인 면 외에도 아믈랭은 고의적인 불협화음과 "의자에서 떨어지지 말 것!"이라는 지시를 하는 등 연주자에게 성격 소곡으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Dulu, 2015)(악보 12).

<악보 11>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6번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에의 오마주' 마디 1-16



<악보 12>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6번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에의 오마주' 마디 172-176, 211-216



(7) 제7곡 '왼손을 위한 연습곡'

알캉, 브람스, 스크리아빈, 고도프스키 등은 왼손을 위한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특히 고도프스키는 다수의 왼손을 위한 연습곡을 남겼으며 아믈랭은 이에 영향을 받아 그의 유일한 왼손 연습곡인 제7곡을 완성하였다. 또한 이 곡은 성악곡인 차이코프스키의 '자장가, Op. 16 No. 1'의 선율을 차용한 편곡 작품이기도 하다. 한 손을 위한 곡은 양손 작품 못지않은 풍부한 짜임새를 효과적으로 연주하여 마치 양손 연주처럼 들리게 하는 연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아믈랭은 이러한 도전에 흥미를 느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Hamelin, 2010). 또한 이 곡에서는 페달을 섬세하게 단계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제시한다(Dulu, 2015, p. 18). 한 손을 사용하지만 마치 두 손으로 연주하는 듯 한 효과를 만들기 위하여 정교한 페달 사용으로 매끄러운 진행과 짜임새의 풍부함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습 제안으로는 양손으로 먼저 연주하여 각 성부를 정확히 인지한 후 맞물리는 부분의 이음줄 처리에 집중하여 연습할 것을 제안한다.

<악보 13>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7번 '왼손을

위한 연습곡’ 마디 1-16



(8) 제8곡 ‘마왕’

이 곡은 괴테의 동명의 시 '마왕'과 같은 내용이며 슈베르트의 가곡과는 연관성이 없다. 아믈랭이 피아노 독주곡으로 재해석한 '마왕'은 자유분방하고 현대적이며 피아니스틱하다.

<악보 14>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8번 '마왕' 마디 1-18



(9) 제9곡 '로시니 연습곡(After Rossini)'

아믈랭은 겹음(double-notes) 연주에 능한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로시니의 성악곡 '춤(La danza)'의 선율에 다양한 겹음의 짜임새를 풍부하게 적용한다. 원곡의 빠른 템포와 흥겨운 6/8박자 리듬을 빌려왔으며, 3도, 6도, 8도 및 불연속적 겹음, 갑작스러운 장조와 단조의 변화, 선율의 전위(inversions), 그리고 발작하는 듯 한 종지부로 로시니의 작품을 비틀었다(Hamelin, 2010).

<악보 15>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9번 '로시니

연습곡’ 마디 50-59, 260-266



(10) 제10곡 ‘쇼팽 연습곡’

이 작품은 원래 하이페리온 음반사의 웹사이트에 <쇼팽 연습곡 Op. 10 No. 5 ‘흑건’>이라는 부제로 소개되었으나 추후 현재의 제목으로 변경되었다(Debenham, 2013). 아믈랭은 부조니의 제자였던 갈스톤(G. Galston)이 작곡한 ‘흑건’의 겹음 형식 편곡에서 영감을 얻었다(Hamelin, 2010). 사실상 쇼팽의 ‘흑건’의 선율과 화성을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우나 곡이 진행됨에 따라 ‘흑건’과 거의 유사한 진행임이 명확해진다(악보 16). 아믈랭은 ‘깊은 물 속에서 들리는 쇼팽의 ‘흑건’ 효과로서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으며, 선율, 선법, 화성, 음색, 짜임새, 심지어 연주자의 신체적 느낌마저 비틀린 모습

이라고 설명했다(Hamelin, 2010). 당연히 기교적으로 큰 도전이 되는 곡이며, '흑건'의 특징과 강렬함이 풍부한 상상력과 섬세함 속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작품이다(Debeham, 2013).

<악보 16>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10번 '쇼팽 연습곡' 마디 1-6



(11) 제11곡 '미뉴에트(Minuetto)'

명랑하고 사근사근한 느낌의 곡으로 우아한 서정성에 치밀한 짜임새와 화성이 더하여 다른 오마주 작품들 못지않은 매력을 발산한다. 전 12곡 중 가장 적은 수의 음표와 접근성 좋은 난이도를 가진다. 제11번은 연습곡집의 작품들 중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곡이며, 반면 제12번은 가장 처음에 작곡하였다. 제11번의 마지막 화음과 아타카로 이어지는 제12번의 첫 화음이 일치한다.

<악보 17>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11번 '미뉴에트'

마디 1-4, 145-150



(12) 제12곡 '전주곡과 푸가'

이 곡은 아믈랭이 작곡한 첫 연습곡으로 푸가 작법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한 곡이다. 복잡한 4성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성되기까지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아믈랭은 작곡을 마친 후에 이 곡이 타네예브(S. Taneyev, 1856-1915)의 <전주곡과 푸가, Op. 29>와 박자, 조성, 피아니즘적 지형, 비슷한 주제 등 다수의 공통점이 있음을 깨달았다(Hamelin, 2010). 또한 그가 녹음했던 부조니의 <피아노 협주곡> 제4악장의 타란텔라와도 몇몇 유사점이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Benser, 2012). 작곡가 자신이 이러한 점을 인정했음에도 이 곡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작곡 기법의 모델인 동시에 전통적인 전주곡과 푸가의 형식 구조를 이어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Debenham, 2013). 느리고 화성적인 전주곡의 기괴한 분위기는 소랍지의 음악을 연상시킨다.

<악보 18> 아믈랭,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 제12번 '전주곡

과 푸가' 마디 1-6, 43-50



Ⅳ. 맺음말

아믈랭은 현존하는 대표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다. 그는 골든 에이지 음악가들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겸업의 전통을 이어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현대적인 동시에 고전적이다. 아믈랭은 리스트, 알캉, 고도프스키 등 그가 즐겨 연주하

는 작곡가에게 영감을 얻어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을 작곡하였다. 이 작품은 전통적 조성에 바탕을 두었으며 옛 음악가들의 연주회용 연습곡의 계보를 잇는다. 아믈랭은 원 작곡가의 기법에서 영감을 얻었으나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그의 선율과 화성은 아방가르드적인 현대 음악과는 대조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하며 전통을 중시하는 동시에 이를 초월하는 미래성을 지닌다. 또한 아믈랭 특유의 재치가 드러나는 의외적 요소로 인하여 동시대 피아니스트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이 곡의 악보는 출간되기 이전부터 피아니스트들 사이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알려졌다. 극히 높은 수준의 비르투오소적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이 곡에 관심을 보이며 도전하고자 한다. 단지 피아노의 기교에만 치중하는 연습곡이 아니라 각각의 곡들이 다양성을 가진 성격 소곡이라는 점 때문이다. 피아니스트들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도전을 주고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이 작품은 현대의 피아노 레퍼토리로서 의미있는 위치를 차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채수아 (2021). 마르크-앙드레 아믈랭의 <12개의 단조를 위한 연습곡>에 나타난 알캉과 고도프스키의 영향. **음악교수법연구**. 22권 2호. 155-179.

Benser, C. (2012). *At the piano: interview with 21st century pianists.* Lanham, Md: Scarecrow Press.

Burwasser, P. (2002). Marc-André Hamelin talks about Godowsky. *Fanfare, the Magazine for Serious Record Collectors,* 25, 26-30.

_____ (2011). 12 Etudes in all minor keys. *Fanfare, the Magazine for Serious Record Collectors,* 34, 293-294.

Corleonis, A. (2007). Marc-André Hamelin – it's all about the music. *Fanfare, the Magazine for Serious Record Collectors,* 31, 311-315.

Debenham, J. (2013). 12 Études in all the minor keys. *Notes*, 70, 186-189.

Dubal, D. (1995). *The Art of the Piano.* San Diego, CA: Harcourt Com.

Dulu, B. (2015). *Redefining virtuosity in Marc-André Hamelin's 12 études in all the minor keys.* D. M. A. diss.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Eatock, C. (2013). Marc-André Hamelin on the road less travelled. *Queen's Quarterly*, 120, 290-300.

Harrington, J.(2011). 12 études in the minor keys. *American Record Guide,* 74, 134-135.

Schonberg, H. (1987). *The great pianist.* New York, New York: Simon & Shuster.

악보

Hamelin, M. (2010). *12 Études in all the minor keys: piano solo.* New York: Peters.

인터넷 문헌 자료

Analekta: Marc-André Hamelin. https://www.analekta.com/en/artists/marc-andre-hamelin/ [2021년 6월 15일 접속].

Classical Music Sentinel(2010). http://www.classicalmusicsentinel.com/THRONE/throne-hamelin-etudes.html[2022년 8월 28일 접속]

Hamelin, M.-A. Marc-André Hamelin: Pianist and Composer (2018). http://marcandrehamelin.com[2021년 6월 15일 접속].

Hyperion: Marc-André Hamelin (piano) (2022). https://www.hyperion-records.co.uk/a.asp?a=A49[2022년 8월 1일접속]

Jarvis, F. afjarvis: Discography of Marc-André Hamelin(2020). http://www.afjarvis.staff.shef.ac.uk/mah/mah.htm [2021년 6월 15일 접속].

인터넷 시청각 자료

AllegroModerato. Youtube: Hamelin-Supervirtuoso documentary (2006). https://www.youtube.com/watch?v=fCJvnZe4Wnk [2022년 6월 1일 접속]

Andrey Dubov. Youtube: Marc-André Hamelin, etude no 3 "d'Apres Paganini-Liszt" (1st version) (2016). https://www.youtube.com/watch?v=h9mqa3y5Mb0 [2022년 6월 1일 접속]

jre58591: Youtube: Marc-André Hamelin Triple Etude d'Apres Chopin (2018). https://www.youtube.com/watch?v=OhgOh8mmefQ [2022년 6월 1일 접속]

SNS 교신

Hamelin, M. (2021), "Your Etudes in 12 Minor Keys." 6월 17일 Facebook messenger 교신.

☐ Abstract

A Study on *12 Études in All the Minor Keys* by Hamelin

Sooah Cha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a research on Marc-André Hamelin's piano solo work, *12 Études in All the Minor Keys,*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piano techniques and the expansion of contemporary piano repertoires. By studying the representative work of Hamelin, which inherits the tradition of the Golden Age pianists who not only perform but compose, as a modern pianist and a composer, we learn the way he connects the old and the present generation. Also this study introduces a new modern repertoire to broaden the knowledge and choices of performers in these days. For this research, detailed analysis was done to meet the composer's intention by collecting the score, related documents, and a wide range of online materials of the work. In addition, the ambiguous part was solved through direct contact with the composer himself. The study of *12 Études in All the Minor Keys* confirmed solid position of Marc-André Hamelin, who inherits the tradition of the past periods and connects to the 21st century, as a pianist and composer. Also, it is meaningful to introduce and analyze the repertoire of valuable concert etudes at the point where old traditions, new techniques, and sounds encounter.

Key Words: Hamelin, 12 Études in all the minor keys, pianist-composer

투고일: 2022년 7월 15일
수정본 제출일: 2022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3일

『음악예술연구』 제12권 2호 (통권22호)

인쇄일 / 2022년 9월 15일
발행일 / 2022년 9월 15일
발행인 / 유순영
편집인 / 이주혜
발행처 /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회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5번지 95호
이메일 / musicalartsjournal@gmail.com